

"일·육아 병행 어려운 한국"

미취학 자녀 둔 엄마 46.4%만 취업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됐다.

결혼 후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취업을 했더라도 자녀가 어릴수록 일하는 시간은 적었다.

통계청이 7일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를 처음 작성·발표했다.

이 지표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15~54세 여성 1450만2000명의 62.4%인 905만3000명이 기혼이었다. 나머지 37.8%(544만9000명)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은 전체 기혼 여성의 절반이 넘는 509만400명(56.3%)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기혼 여성은 22만명(-2.4%) 감소하고 미혼 여성은 6만4000명(1.2%) 증가한 것이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도 전체 기혼 여성이 줄어든 영향으로 11만1000명(-2.1%)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40~49세'가 243만1000명(47.7%)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다음으로 '30~39세' 219만4000명(43.1%), '15~29세' 24만3000명(4.8%), '50~54세' 22만6000명(4.4%)이 뒤를 이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30~54세'(1만1000명·5.2%)

"18세 미만 자녀 수 많고 어릴수록 고용률 낮아"

자녀 둔 여성별 고용률, 제주 1위·울산 꼴찌

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자녀수 별로는 18세 미만 자녀 1명을 둔 여성이 233만8000명(45.9%), 2명은 232만명(45.5%)이었다. 3명 이상을 둔 여성은 43만6000명(8.6%)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명은 4만2000명(-1.8%), 2명은 6만6000명(-2.8%), 3명 이상은 4000명(-0.8%) 각각 줄어든 것이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낮았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49.1%로 절반이 채 안됐다. 2명 55.5%, 1명인 경우 57.8%로 고용률이 높아졌다. 1년 전보다 자녀 수가 3명 이상(-0.3%포인트)인 경우에만 고용률이 줄었다. 1명과 2명은 각각 1.0%포인트, 0.9%포인트 늘었다.

또 자녀 나이가 6세 이하인 여성의 고용률은 46.4%에 불과했다. 뒤 이어 '20만~30만원 미만' 49만8000명(21.8%), '30만~40만원 미만' 28만7000명(12.6%), '100만원 미만' 28만2000명(12.4%) 순이었다. 1년 전보다 '100만원 미만'(-1.6%포인트)과 '100만~200만원 미만'(-

트) 모두 고용률이 소폭 커졌다.

취업을 했더라도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적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이 평균 일하는 시간은 34.7시간이었다. 7~12세와 13~17세 자녀를 둔 경우는 각각 39.2시간, 41.1시간이었다.

취업 여성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228만1000명(79.9%), 비임금근로자 57만3000명(20.1%)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55만8000명(68.3%)으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72만3000명(31.7%)으로 2.4%포인트 줄었다. 통상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포항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임금근로자를 임금 수준별로 보면 '100만~200만원 미만'이 99만5000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 49만8000명(21.8%), '300만~400만원 미만' 28만7000명(12.6%), '100만원 미만' 28만2000명(12.4%) 순이었다. 1년 전보다 '100만원 미만'(-1.6%포인트)과 '100만~200만원 미만'(-

1.1%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비중이 상승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자녀 수가 많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케어(돌봄)해야 할 시간이 늘어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적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지 않다보니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산업별 비중은 육아 병행이 보다 수월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6만6000명·51.4%)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68만8000명·24.1%)에 몰려 있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취업자는 경기도(75만7000명), 서울시(51만2000명), 경상남도(18만3000명), 부산시(16만1000명), 인천시(15만8000명)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이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수 자체가 많기 때문이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시·도별 고용률은 제주(76.9%)가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5.4% 상승한 것이다.

제주 다음으로 강원도·충청북도(각 62.5%), 광주시(61.0%), 전라북도(60.1%) 등의 순으로 높았고, 울산시가 48.3%로 가장 낮았다.



"우리가 광주·전남 우수 청년기술인력"

중기부 광주전남청, 디자인·설계 경진대회 시상식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행)은 지난 11일초부터 실시한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디자인·설계분야 청년 기술인력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기계·금형설계 2개 분야가 추가하여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지역 특성화고·직업학교 학생 미취업 대학생 118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 선정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멀티미디어분야에는 전남 여상, 순천효산고, 한울직업학교 등이 참여하였고, 자동화설계에는 광주자동화설비고등학교 등이 신규로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하였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의 영예를 안은 청년 기술인재 37명에 대해 12월 7일 광주시, 교육청, 고용노동청 8개 기관에서 상장을 수여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상태로 있다가 광주인력개발원에서 컴퓨터 그래픽 전문지격을 취득한 양상현 학생은 "이번 수상이 디자인 전문

기술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지도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광주시장상을 받은 폴리텍대 김동현 학생을 지도한 신현성 교수는 "학교에서 익힌 기계설계는 제품개발의 기반기술로서 기업의 수요가 많은 분야이므로 이번 수상으로 우수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심사위원인 김락준원장(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수상자)은 "우리 지역 핵심분야인 자동화설계의 지원자가 많았다"고 하면서 자동화설계는 자동화분야의 온두조절과 수산물 자동포장 등 넓은 분야에서 필요하므로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심사소회를 밝혔다.

김진행 청장은 지역경제의 희망인 젊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해주시길 바라고 훌륭한 인재를 지도해 준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은홍 기자

롯데백 광주점 "포항 지진 피해 돕기 함께해요"

오늘부터 14일까지 포항 특산물 장터 마련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농어민을 돕기 위해 포항 특산물을 마련한다.

지난달 15일 규모 5.4 지진이 경북 포항시 북구지역에서 발생한 후 지진 후폭풍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포항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포항지역 지진이후 관광객 감소로 인한 특산물 판매 부진 등 지역 경기침체를 함께 극복하고자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지하1층 식품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포항 특산물전은 포항축협, 공동어시장, 생산농가와 연계해 농·수산물 산지직송 직거래하여 포항의 특산물 과메기, 문어, 가지미, 대게, 홍게, 대구, 고등어, 포항초, 건패지갑자, 건여주 등 총 20여개의 상품들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정현점장은 "백화점 유통망을 적극 활용해 포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포항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포항지역의 생산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은홍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 수산코너에서는 포항의 특산물 과메기를 선보이고 있다.

'노후 생활비' 얼마?...40대 이상 "월192만원 은 돼야"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시점이 머지 않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한 달에 최저 19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 금융 소비자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저 생활비는 월평균 19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금융소비자 2만명(95% 신뢰수준, 오차 범위 ±0.69%)을 대상으로 9월2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반면 실제 은퇴 가구의 한 달 지출금액은 평균 224만원으로 집계돼 40대 중·장년층의 인식보다 32만원 더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금융자산 보유액수에 따라 차이가 났다.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생활비(40%) 걱정이 가장 컸다.

지난해 조사(36%) 때보다도 4%p 높아진 수치다. 반면 금융자산 1억원이 넘는 가구는 의료비(32%)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여가비에 대한 우려도 자산 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4%에 불과했지만, 1억원이 넘는 가구는 10%를 차지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